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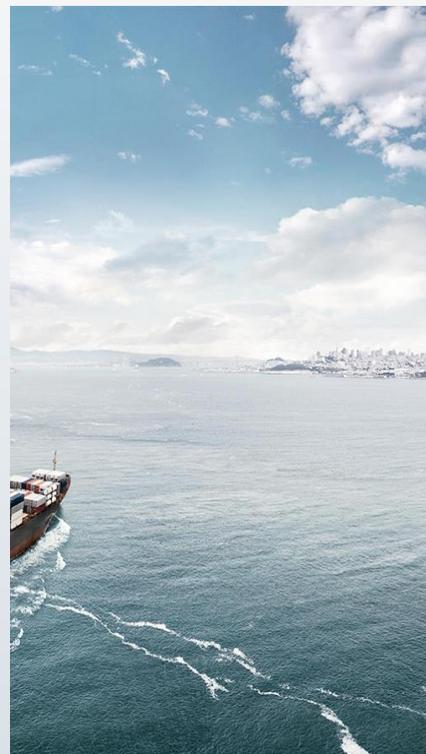


STL MARKET REPORT

Weekly Focus No.276

Updated November 26, 2019

The STL Market Report covers major issues affecting the world S&P market and provides an outlook for the market developments. The report provides a detailed analysis of key developments impacting S&P market trends.



Contents

Issue & Trend	1
Bulk Carrier	6
- BC Sales Report	
Tankers	10
- Tanker & Container Sales Report	
Demolition	15
Key Indicators	18
STL News & Information	20
Contact Information	21

** 본 자료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내, 외신 자료와 언론보도를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법적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I. ISSUE & TREND

1. 말레이시아도 개방형 스크러버 금지

말레이시아도 개방형 탈황장치(스크러버) 금지 대열에 합류했다.

말레이시아 해운부는 자국 연안 12 해리를 항해하는 선박에 대해 개방형 스크러버의 세정수 배출을 금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운부는 지난 12일 발표한 고시에서 저유황유 사용과 세정수를 해수에 버리지 않도록 설계된 폐쇄형 스크러버 사용을 권장했다. 다만 규정 시행시기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번 규제는 브라질 광산회사인 발레의 철광석을 수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말레이시아엔 발레의 철광석 중계기지가 있다. 발레는 2020년 이내에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철강석 수송선박의 74%에 스크러버를 설치할 방침이다. 스크러버의 형식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개방형이 대부분일 거란 관측이다.

말레이시아를 드나드는 유조선의 경우 아프라막스선박이 대부분이어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평가됐다. 규모가 크지 않은 아프라막스는 초대형유조선(VLCC)과 비교해 스크러버 설치율이 낮은 편이다.

개방형 스크러버를 금지한 지역은 현재 독일과 벨기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이다. 지난해 11월 싱가포르가 금지 대열에 동참했고 한달 뒤 중국도 보하이만(발해만) 등 일부 해역에 세정수 배출을 금지했다. 올해 1월에는 아랍에미리트(UAE)가 푸자이라항에 대해 같은 조치를 내렸다.

반면 일본과 편의치적국인 마셜제도공화국은 자체 조사를 통해 개방형 스크러버의 세정수 배출이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국제해사기구(IMO)도 개방형 스크러버 도입을 인정하고 있다.

황산화물 배출을 줄여주는 장치인 스크러버는 바닷물을 이용해 배기가스를 씻어낸 뒤 폐수를 바다로 버리는 개방형과 내부 세정수를 순환시키는 폐쇄형, 양 방식으로 전환 가능한 하이브리드형 세 가지 타입이 있다.

I . ISSUE & TREND

2. 中, 2050년까지 스마트·친환경 항만 실현 박차

‘세계일류항만건설 관련 지도의견’ 로드맵 발표

중국이 스마트·친환경항만 실현을 목표로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최근 중국 교통운수부(교통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재정부 등 9개 부처는 ‘세계일류항만건설 관련 지도의견’ 로드맵을 발표, 30년 이내에 중국 항만을 세계 일류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로드맵은 종합서비스 제고, 친환경·스마트항만 건설, 안전 항만 구축, 항만관리 현대화 등을 담았다. 스마트항만 구축은 5G(5세대), IOT(사물인터넷) 등 기술적 정보기초시설 건설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는 항만 내부 트레일러 및 특수장면 집배송 통로 트레일러 자동운행 시범, 항만구역연동 심화 등이 있다. 중국 정부는 2025~2035년까지 일부 컨테이너허브항에 유비쿼터스 상호연결 및 항만 차량 협동 스마트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중국 정부는 2025년까지 컨테이너와 벌크화물을 처리하는 주요 항만에 인입철도선을, 2035년까지 주요 항만의 철수연운(RAIL-WATER) 운송비율을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 10곳 중 7곳의 항만에 인입철도선이 구축돼 복합운송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일각에서는 자국 항만이 글로벌 항만과 비교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제기해왔다. 중산대학 홍콩마카오광둥 주삼각연구중심의 전천상 교수는 “중국 항만의 화물 취급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해운서비스업 부문의 경쟁력은 글로벌 항만들에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다.

중남대학교교통운수학원 진진 부원장은 “중국 항만의 하드웨어는 외국과 큰 차이가 없으며, 심지어 중국 항만의 하드웨어운영은 외국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중국의 많은 항만들이 건설됐지만 효율은 세계선진항만에 비해 낮다”고 말했다. 9개 부처가 제시한 ‘지도의견’은 해운항만, 상업무역, 금융보험 등 현대서비스업의 적극적 발전으로, 국제화물환적, 혼재 등 업무를 유치하고, 해운서비스 능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통부에 따르면 2018년 말 중국의 선석은 1949년 대비 149배 폭증한 2만 3919개로 연평균 7.5%의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 중 1만 T급 이상 선석은 1957년 38개에서 2444개로 연평균 7.1% 증가했다. 지난해 전 세계 컨테이너취급량 10대 항만 중 7곳이 중국 항만이였다.

I . ISSUE & TREND

3. 中, 국제 원자재 거래 가격 영향력 속속 확대

위안 표시 원유 선물 거래 착수 이어 철광석 수입 첫 위안 결제 계약
 브라질 발레, 中 용평에 철광석 팔면서 다렌상품거래소 가격 사용
 딜러 "매우 이례적 조치..中, 막강한 구매력 발판 영향력 확대"
 "中 원유 선물 거래, 지정학적 요소 등으로 여전히 갈 길 멀다"

중국이 지난해 위안화 표시 원유 선물 거래를 시작한 데 이어 이번에는 철광석 수입을 위안화로 결제하는 등 국제 원자재 시장 영향력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스가 20 일 전한 바로는 브라질 철광석 대기업 발레는 최근 산둥성 소재 산둥 라이강 용평 스틸 트레이드와 철광석 현물 판매를 계약하면서 다렌상품거래소(DCE) 철광석 가격을 기준으로 사용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외국 광업회사가 중국과 철광석 현물 거래를 하면서 중국 철광석 선물 계약 시스템을 사용한 것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DCE 가 이를 국제 원자재 거래에서 중국 영향력을 높이는 "이정표"라고 의미를 부여했다고 덧붙였다.

DCE 의 지난 14 일 자 성명에 의하면 용평은 2020 년 5 월 인도분 DCE 선물 가격에 근거해 발레 철광석을 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지난해 10 억 6 천 400 만 T 을 도입한 세계 최대 철광석 수입국이다. 퍼스트 피처스의 철금속 거래 부책임자 류원성은 글로벌타임스에 "주요 철광석 생산국인 브라질이 중국 바이어에게 더 편리하게 공급할 수 있는 채널을 선택함으로써 국제 거래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중요성을 더욱 높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는 "새로운 거래 방식을 통해 중국 철강 생산업계가 환 리스크를 우회하는 혜택도 얻게 됐다"고 덧붙였다. 글로벌타임스는 발레와 용평 간 계약이 런던에 거점을 둔 또 다른 철광석 대기업 리오 틴토가 자사 처음으로 현물 거래를 위안화 결제로 계약한 지 몇 주 후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철금속 거래 전문가 우천후이는 글로벌타임스에 "그간 외국 기업들이 대부분 철광석의 경우 프렛 벤치마크와 원유는 브렌트 기준으로 가격을 계약해왔다"면서 "따라서 매우 이례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막대한 수요를 바탕으로 국제 원자재 시장에서 영향력이 급격히 커지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글로벌타임스는 그러나 중국이 지난해 상하이 거래소에서 위안화 표시

I . ISSUE & TREND

원유 선물 거래를 시작했음에도, 원유 가격이 지정학적 요소에 크게 좌우되는 점 등은 중국의 갈 길이 여전히 먼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4. 세계경제 성장세, 유로지역 낮고·일본·중국 둔화...미국, '양호'

한국은행이 해외경제포커스에 게재한 '최근 해외경제 동향'에 따르면 세계경제 성장세가 유로지역과 일본 중국 등 대부분 낮거나 둔화 상태를 기록했지만 미국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최근 세계 경제 동향 분석

미국의 경제 성장세는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여타 지표도 개선흐름을 나타내는 등 비교적 양호한 상태를 유지했다. 이는 10월 실업률이 3.6%로 낮은 수준을 이어간 데다 시간당 임금상승률도 높은 수준을 보이면서 소매판매가 전월대비 증가로 전환했기 때문.

하지만 산업생산은 GM 파업 여파 등으로 2개월 연속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향후 미국 경제는 소비를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겠으나 올해 성장률은 글로벌 경기 둔화,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지난해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유로지역은 3분기 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0.2%를 기록하는 등 낮은 성장세를 지속했다.

이는 자동차,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부진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노동시장은 명목임금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실업률이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나타내는 등 개선 흐름을 유지했다. 향후 유로지역 경제는 독일을 중심으로 제조업 생산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면서 하방리스크가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일본은 생산과 수출 부진으로 성장세가 둔화됐다. 3분기중 산업생산이 전년 동기대비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고 수출도 감소 흐름이 계속되면서 GDP 성장률(0.2%, 전기대비연율)이 전분기보다 하락했다. 향후 일본 경제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도 불구하고 소비세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I . ISSUE & TREND

중국은 대내외 수요 부진으로 성장세 둔화 양상이 지속됐다.

수출이 3개월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한 가운데 내수 부문에서는 소비와 투자도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산업생산 증가율도 철, 시멘트 및 전력을 중심으로 하락했다. 향후 중국 경제는 대외여건 불확실성 등으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중국 정부의 경기대응책을 감안할 때 성장률이 급락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됐다.

기타 신흥국을 보면 아세안 5개국은 소비가 소폭 둔화됐으나 수출 부진은 어느 정도 완화됐다. 인도는 소비와 수출의 감소폭이 줄어들었으며 브라질의 경우 소비 증가세가 확대됐다.

한편 국제 원자재시장은 11월중 국제유가(11.1~19일 평균)가 미·중 무역합의 기대에 따른 수요둔화 우려 완화 등으로 전월대비 상승했고 향후 미·중 무역합의 결과와 세부 내용, 사우디 국영석유회사 상장, OPEC+ 감산시기 연장 및 추가 감산 여부 등에 따라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전망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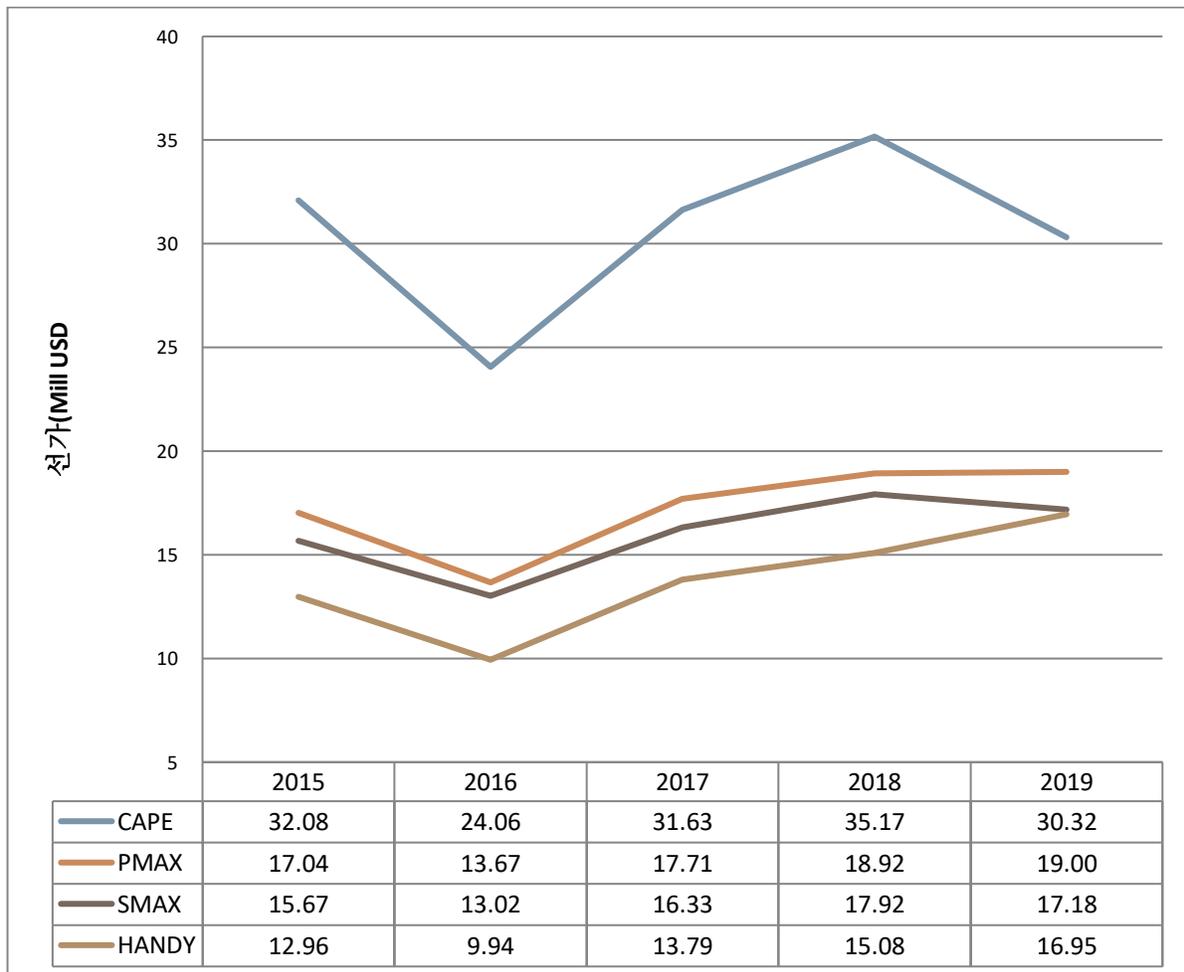
II . BULK CARRIER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율 : 전년도 대비,%)

연평균 선가	2015	2016	2017	2018	2019
Capesize 180K	32.08	24.06	31.63	35.17	30.32
	-31.45%	-24.99%	31.43%	11.20%	-13.80%
Panamax 76K	17.04	13.67	17.71	18.92	19.00
	-30.16%	-19.80%	29.57%	6.82%	0.42%
Supramax 58K	15.67	13.02	16.33	17.92	17.18
	-36.04%	-16.91%	25.44%	9.69%	-4.12%
Handysize 37K	12.96	9.94	13.79	15.08	16.95
	-33.20%	-23.32%	38.78%	9.37%	12.43%

□ BC 연평균 선가 - 선령 5 년 기준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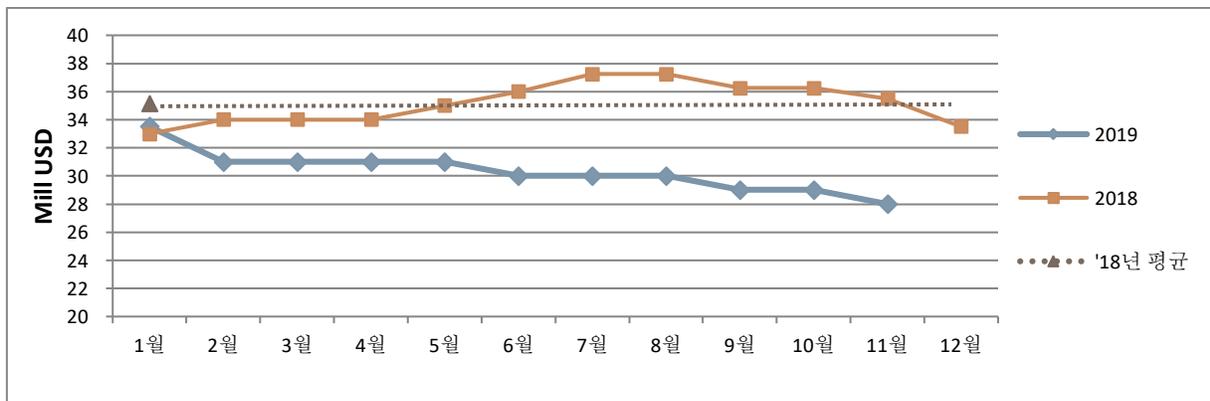




II . BULK CARRIER

구분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평균	
2019	CAPE 180K	선가	33.50	31.00	31.00	31.00	31.00	31.00	30.00	30.00	29.00	29.00	28.00		30.32
		전월대비	0.0%	-7.5%	0.0%	0.0%	0.0%	0.0%	0.0%	0.0%	-3.3%	0.0%	-3.4%		-
		전년대비	1.5%	-8.8%	-8.8%	-8.8%	-8.8%	-11.4%	-19.5%	-19.5%	-20.0%	-20.0%	-21.1%		-13.8%
	PMAx 76k	선가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전월대비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
		전년대비	2.7%	2.7%	0.0%	0.0%	0.0%	0.0%	0.0%	0.0%	0.0%	0.0%	0.0%		0.4%
	SMAx 58k	선가	18.00	17.00	17.00	17.00	17.00	17.00	17.00	17.50	17.50	17.00	17.00		17.18
		전월대비	0.0%	-5.6%	0.0%	0.0%	0.0%	0.0%	0.0%	2.9%	0.0%	-2.9%	0.0%		-
		전년대비	2.9%	-2.9%	-5.6%	-5.6%	-5.6%	-5.6%	-5.6%	-2.8%	-2.8%	-5.6%	-5.6%		-4.1%
HNDY 37k	선가	17.00	17.00	17.00	17.00	17.00	17.00	17.00	17.00	17.00	17.00	16.50		16.95	
	전월대비	13.3%	0.0%	0.0%	0.0%	0.0%	0.0%	0.0%	0.0%	0.0%	0.0%	-2.9%		-	
	전년대비	21.4%	21.4%	13.3%	9.7%	9.7%	9.7%	6.3%	13.3%	13.3%	13.3%	10.0%		12.4%	
2018	CAPE	33.00	34.00	34.00	34.00	35.00	34.00	37.25	37.25	36.25	36.25	35.50	33.50		35.17
	PMAx	18.50	18.50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18.92
	SMAx	17.50	17.50	18.00	18.00	18.00	18.00	18.00	18.00	18.00	18.00	18.00	18.00		17.92
	HANDY (32k)	14.00	14.00	15.00	15.50	15.50	15.50	16.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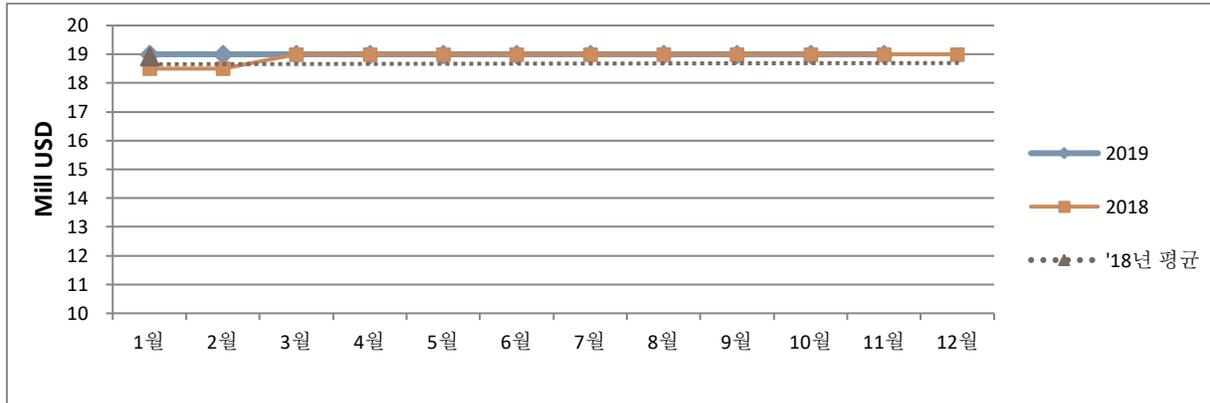
□ Ca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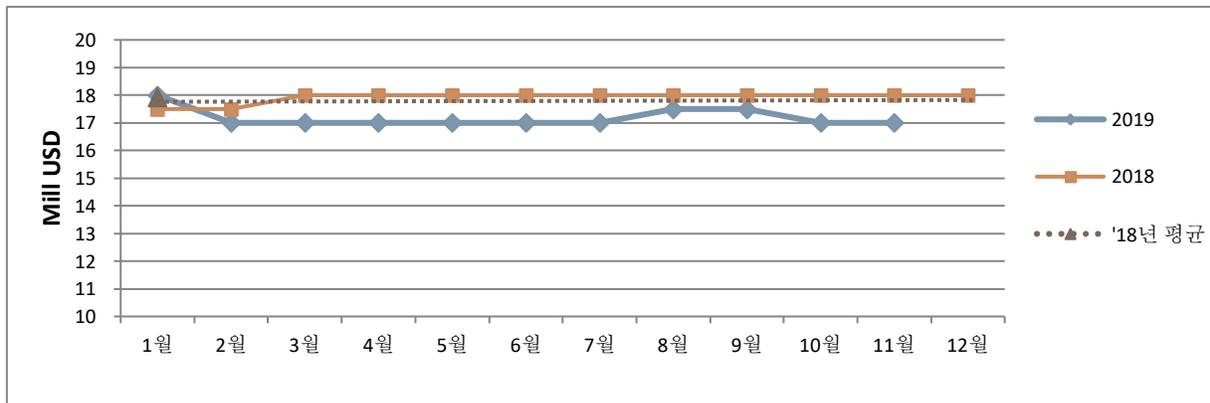


II. BULK CARRI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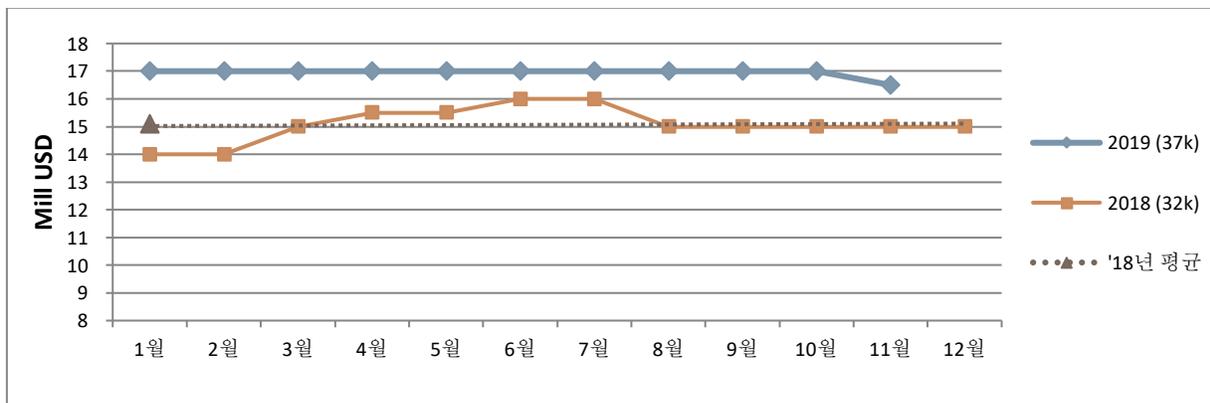
□ Panamax



□ Supramax



□ Handy





II . BULK CARRIER

III-1. Bulk Carrier Sales Report

TYPE	VESSEL	DWT	BLT	YARD	M/E	GEAR	PRICE	REMARKS
BC	KM TOKYO	83,483	2010	JAPAN	B&W		16	Undisclosed buyer
BC	SANTA HELENA	58,215	2012	JAPAN	B&W	C 4x30.5t	14.5	Greek buyer
BC	LORD	52,504	2004	PHILIPPINES(JPN)	B&W	C 4x30t	5.3	Chinese buyer
BC	ERO L	50,243	2003	CHINA	B&W	C 4x36t	6.5	Chinese buyer
BC	MARIA L	50,243	2003	CHINA	B&W	C 4x36t	6.5	
BC	GRAIG CARDIFF	34,898	2012	CHINA	B&W	C 4x30T	8.7	German Buyers
BC	SHELDUCK	34,467	2012	KOREA	B&W	C 4x35t	9.5	Greek buyer (Bluefin)
BC	PRINSESA MAGANDA	28,361	2012	JAPAN	B&W	C 4x30.5t	8.3-8.6	Undisclosed buyer
BC	LOVELY KLARA (log fitted)	28,186	2002	JAPAN	MITSU	C 4x30t	4.5-4.7	Chinese buy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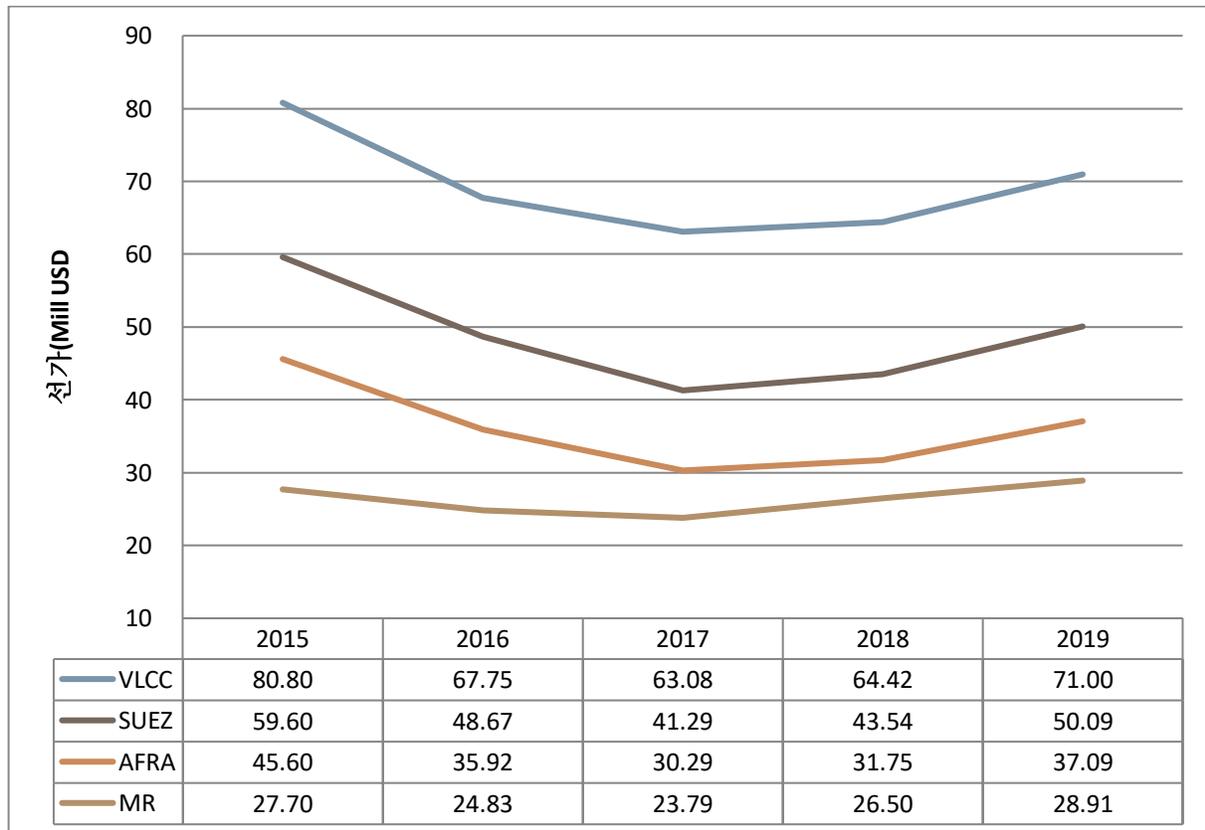
III. TANKER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율 : 전년도 대비,%)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VLCC 310K	80.80	67.75	63.08	64.42	71.00
	9.04%	-16.15%	-6.89%	2.11%	10.21%
Suezmax 160K	59.60	48.67	41.29	43.54	50.09
	17.32%	-18.34%	-15.15%	5.45%	15.05%
Aframax 105K	45.60	35.92	30.29	31.75	37.09
	17.83%	-21.24%	-15.66%	4.81%	16.82%
MR 51K	27.70	24.83	23.79	26.50	28.91
	2.97%	-10.35%	-4.19%	11.38%	9.09%
Chemical Tanker IMO II 13K	12.60	13.92	12.42	11.77	10.93
	-3.08%	10.45%	-10.78%	-5.20%	-7.12%

□ TANKER 연평균 선가 - 선령 5 년 기준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율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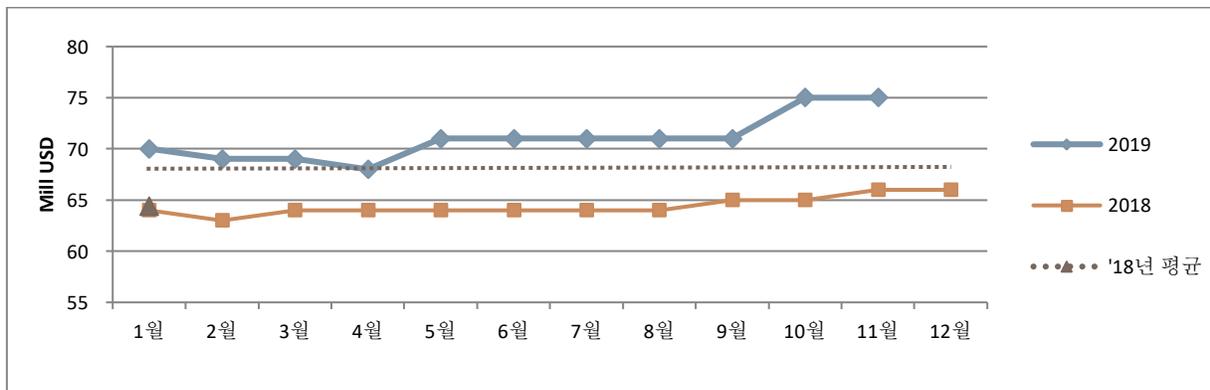




III. TAN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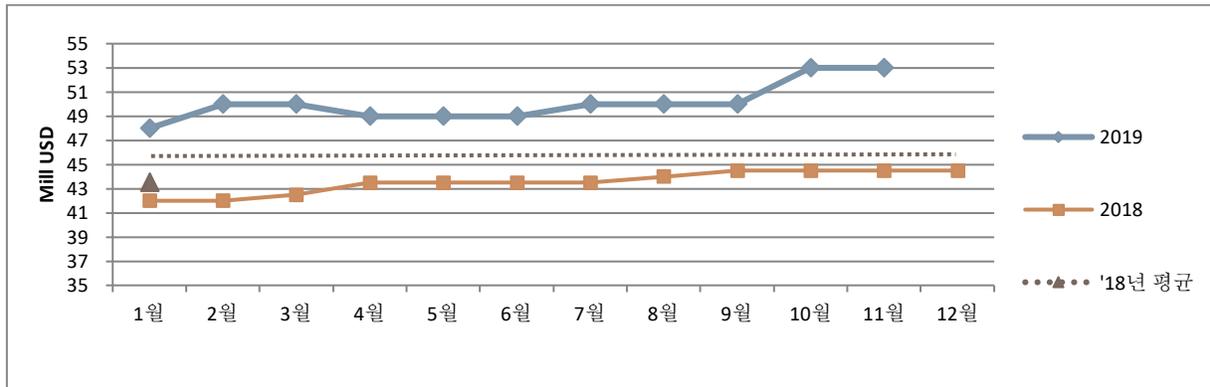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2019	VLCC 310K	선가	70.00	69.00	69.00	68.00	71.00	71.00	71.00	71.00	71.00	75.00	75.00		71.00
		전월대비	6.1%	-1.4%	0.0%	-1.4%	4.4%	0.0%	0.0%	0.0%	0.0%	5.6%	0.0%		-
		전년대비	9.4%	9.5%	7.8%	6.3%	10.9%	10.9%	10.9%	10.9%	9.2%	15.4%	13.6%		10.2%
	SUEZ 160K	선가	48.00	50.00	50.00	49.00	49.00	49.00	50.00	50.00	50.00	53.00	53.00		50.09
		전월대비	7.9%	4.2%	0.0%	-2.0%	0.0%	0.0%	2.0%	0.0%	0.0%	6.0%	0.0%		-
		전년대비	14.3%	19.0%	17.6%	12.6%	12.6%	12.6%	14.9%	13.6%	12.4%	19.1%	19.1%		15.0%
	AFRA 105K	선가	35.00	35.00	35.00	35.00	35.00	37.00	38.00	38.00	38.00	41.00	41.00		37.09
		전월대비	6.1%	0.0%	0.0%	0.0%	0.0%	5.7%	2.7%	0.0%	0.0%	7.9%	0.0%		-
		전년대비	9.4%	16.7%	12.9%	9.4%	9.4%	15.6%	18.8%	18.8%	18.8%	32.3%	28.1%		16.8%
	MR 51K	선가	28.00	28.00	28.00	28.00	28.00	29.00	30.00	30.00	29.00	30.00	30.00		28.91
		전월대비	1.8%	0.0%	0.0%	0.0%	0.0%	3.6%	3.4%	0.0%	-3.3%	3.4%	0.0%		-
		전년대비	12.0%	12.0%	7.7%	4.7%	4.7%	8.4%	12.1%	15.4%	7.4%	11.1%	9.1%		9.1%
CHEM IMO2 13K	선가	11.00	11.25	11.00	11.00	11.00	11.00	11.00	11.00	10.75	10.75	10.50		10.93	
	전월대비	0.0%	2.3%	-2.2%	0.0%	0.0%	0.0%	0.0%	0.0%	-2.3%	0.0%	-2.3%		-	
	전년대비	-15.4%	-10.0%	-12.0%	-10.2%	-6.4%	-4.3%	-4.3%	-4.3%	-6.5%	-4.4%	-4.5%		-7.1%	
2018	VLCC	64.00	63.00	64.00	64.00	64.00	64.00	64.00	64.00	65.00	65.00	66.00	66.00	64.42	
	SUEZ	42.00	42.00	42.50	43.50	43.50	43.50	43.50	44.00	44.50	44.50	44.50	44.50	43.54	
	AFRA	32.00	30.00	31.00	32.00	32.00	32.00	32.00	32.00	32.00	31.00	32.00	33.00	31.75	
	MR	25.00	25.00	26.00	26.75	26.75	26.75	26.75	26.00	27.00	27.00	27.50	27.50	26.50	
	CHEM	13.00	12.50	12.50	12.25	11.75	11.50	11.50	11.50	11.50	11.25	11.00	11.00	11.77	

VLCC-310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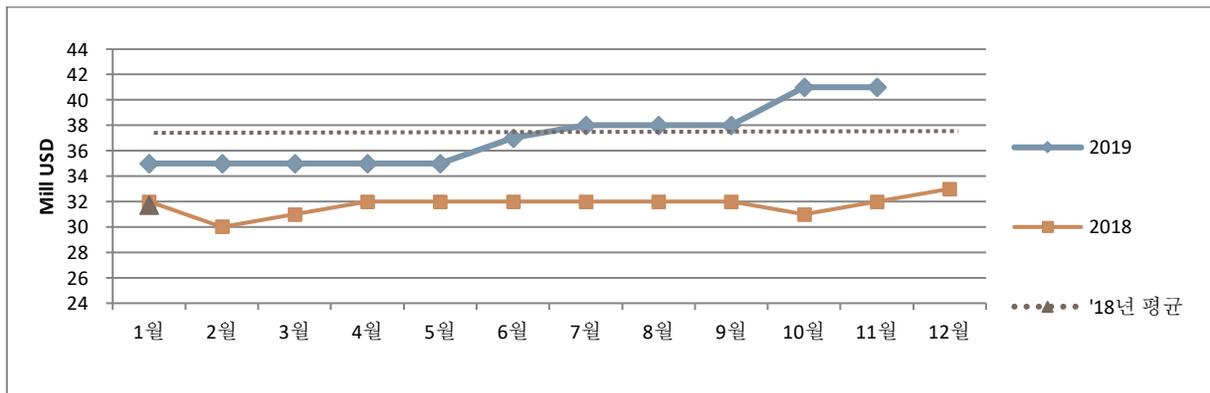


III. TAN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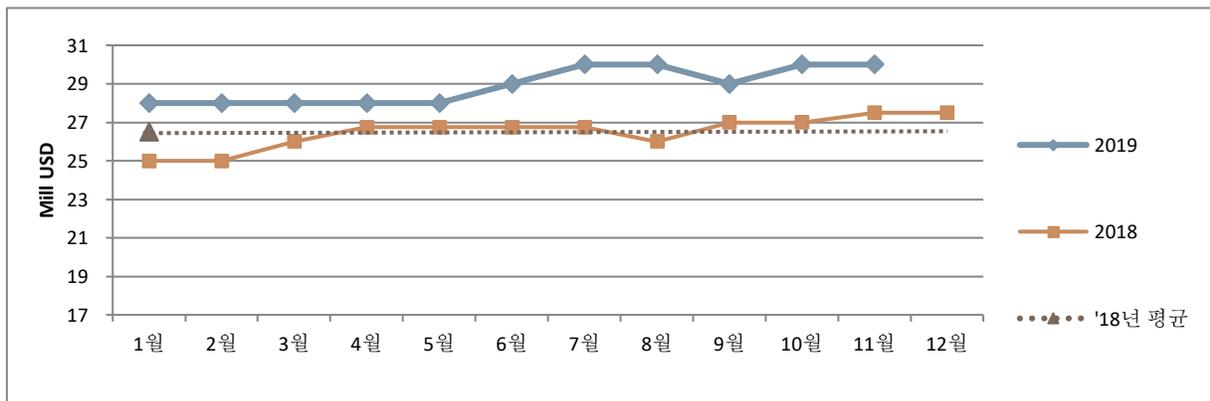
□ SUEZMAX-160K



□ AFRAMAX-105K



□ MR-51K



III. TANKER

IV-1. Tanker Sales Reported

1) TANKER

TYPE	VESSEL	DWT	BLT	YARD	M/E	IMO	PRICE	REMARKS
TANKER	BRIGHTOIL GEM	319,798	2013	KOREA	B&W		57.4	Greek buyer, Auction sale
TANKER	SINO MACRO	311,168	1999	KOREA	B&W		20	Undisclosed buyer
TANKER	NAUTIC	150,812	1998	JAPAN	SULZ		-	Indian buyer
TANKER	JAG LAKSHITA	147,093	2000	KOREA	B&W		16	Undisclosed buyer
TANKER	VIRGO SUN	115,577	2007	JAPAN	B&W		26	Greek buyer (Performance Shipping)
TANKER	ARISTODIMOS	113,553	2006	KOREA	B&W		21.5	Indonesian buyer
TANKER	AMORE MIO	113,553	2006	KOREA	B&W		21.5	
TANKER	SEAWAYS PORTLAND	112,056	2002	KOREA	B&W		12.85	Undisclosed buyer
TANKER	CONQUEROR	70,616	2004	KOREA	B&W		-	Spain buyer (Peninsula Petroleum SL)
TANKER	TORM GARONNE	37,178	2004	KOREA	B&W		9.3	Undisclosed buyer
CHEM	SUSANNE VICTORY	48,338	2000	JAPAN	SULZ	2	8.9-9.4	Chinese buyer



III. TANKER

2) CONTAINER, REEFER, ETC

TYPE	VESSEL	DWT	BLT	YARD	M/E	CAPA	UNIT	PRICE	REMARKS
CONT	APL SOUTHAMPTON	131,358	2012	KOREA	B&W	10700	TEU	73.5	Hong Kong buyer (Seaspan Corporation)
CONT	APL PARIS	131,204	2012	KOREA	B&W	10700	TEU	73.5	
CONT	APL DUBLIN	131,204	2012	KOREA	B&W	10700	TEU	73.5	
CONT	APL VANCOUVER	115,060	2013	KOREA	B&W	9200	TEU	51.6	
CONT	APL MEXICO CITY	115,024	2014	KOREA	B&W	9200	TEU	56.4	
CONT	APL NEW YORK	108,550	2013	KOREA	B&W	9200	TEU	51.6	
CONT	SYNERGY ANTWERP	50,500	2008	KOREA	B&W	4253	TEU	9.7	Greek buyer (Euroseas)
CONT	SYNERGY BUSAN	50,500	2009	KOREA	B&W	4253	TEU	9.9	
CONT	SYNERGY OAKLAND	50,500	2009	KOREA	B&W	4253	TEU	10	
CONT	SYNERGY KEELUNG	50,500	2009	KOREA	B&W	4253	TEU	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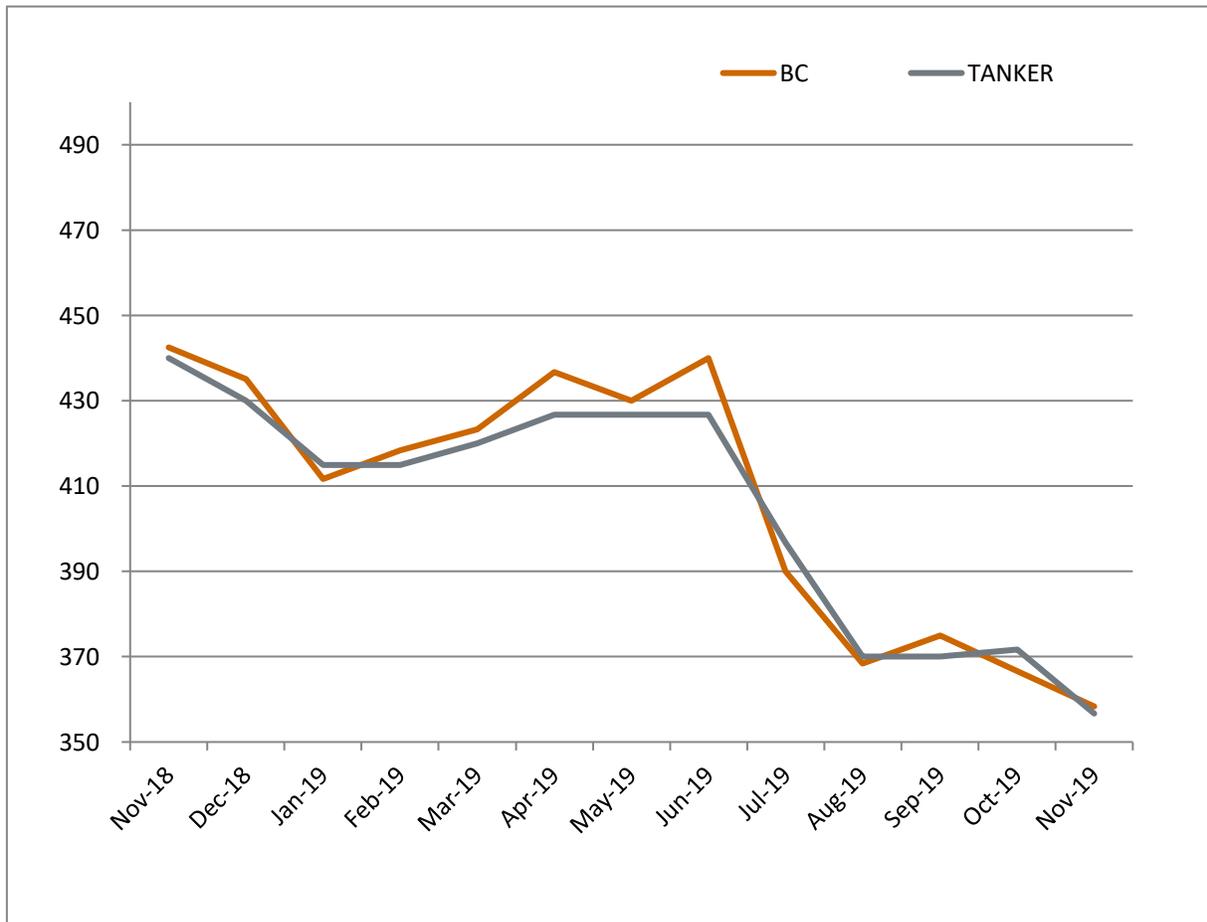


IV. DEMOLITION

1) 선가

해체선가 (US\$/LDT)	2017 평균		2018 평균		2019 평균		2018 년 11 월	2019 년 11 월		
		증감율 (전년대비)		증감율 (전년대비)		증감율 (전년대비)		증감율 (전월대비)	증감율 (전년대비)	
TANKER	365.21	37.5%	432.92	18.5%	399.55	-7.7%	440.00	356.67	-4.0%	-18.9%
BC	370.83	38.5%	440.63	18.8%	401.67	-8.8%	442.50	358.33	-2.3%	-19.0%

◆기준 : 인도해체선시장(USD/LDT), 증감율 (전년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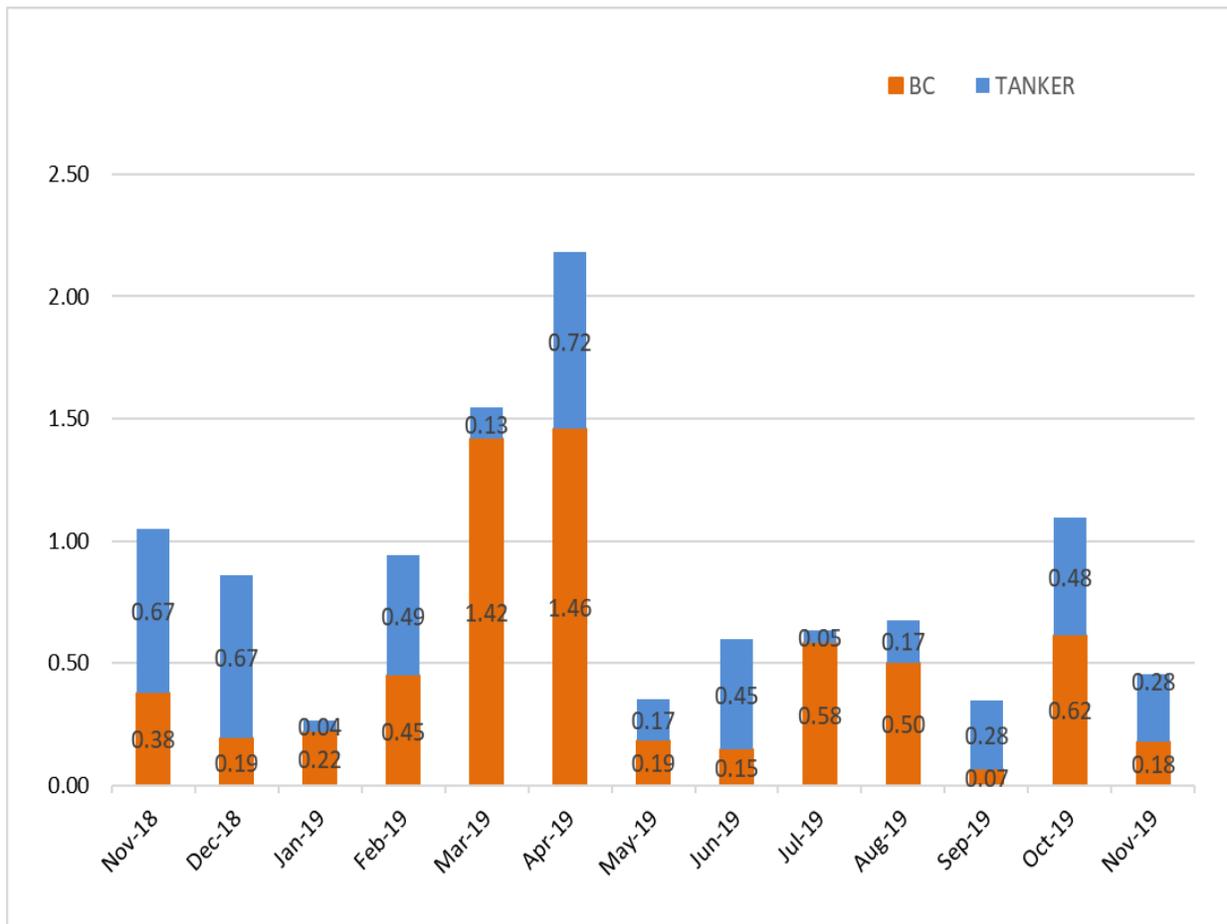


IV. DEMOLITION

2) 해체선누적현황

해체선 총량	2018 년		2019 년 누적			2018 년 11 월		2019 년 11 월				
	Million DWT	No.	Million DWT	누적율 (전년대비)	No.	누적율 (전년대비)	Million DWT	No.	Million DWT	증감율 (전년대비)	No.	증감율 (전년대비)
TANKER	20.86	195	3.26	15.6%	83	42.6%	0.67	11	0.28	-58.7%	6	-45.5%
BC	4.20	112	5.82	138.5%	97	86.6%	0.38	9	0.18	-53.7%	2	-77.8%

3) 해체선총량 (MILLION DWT)





IV. DEMOLITION

V-1. Demolition Sales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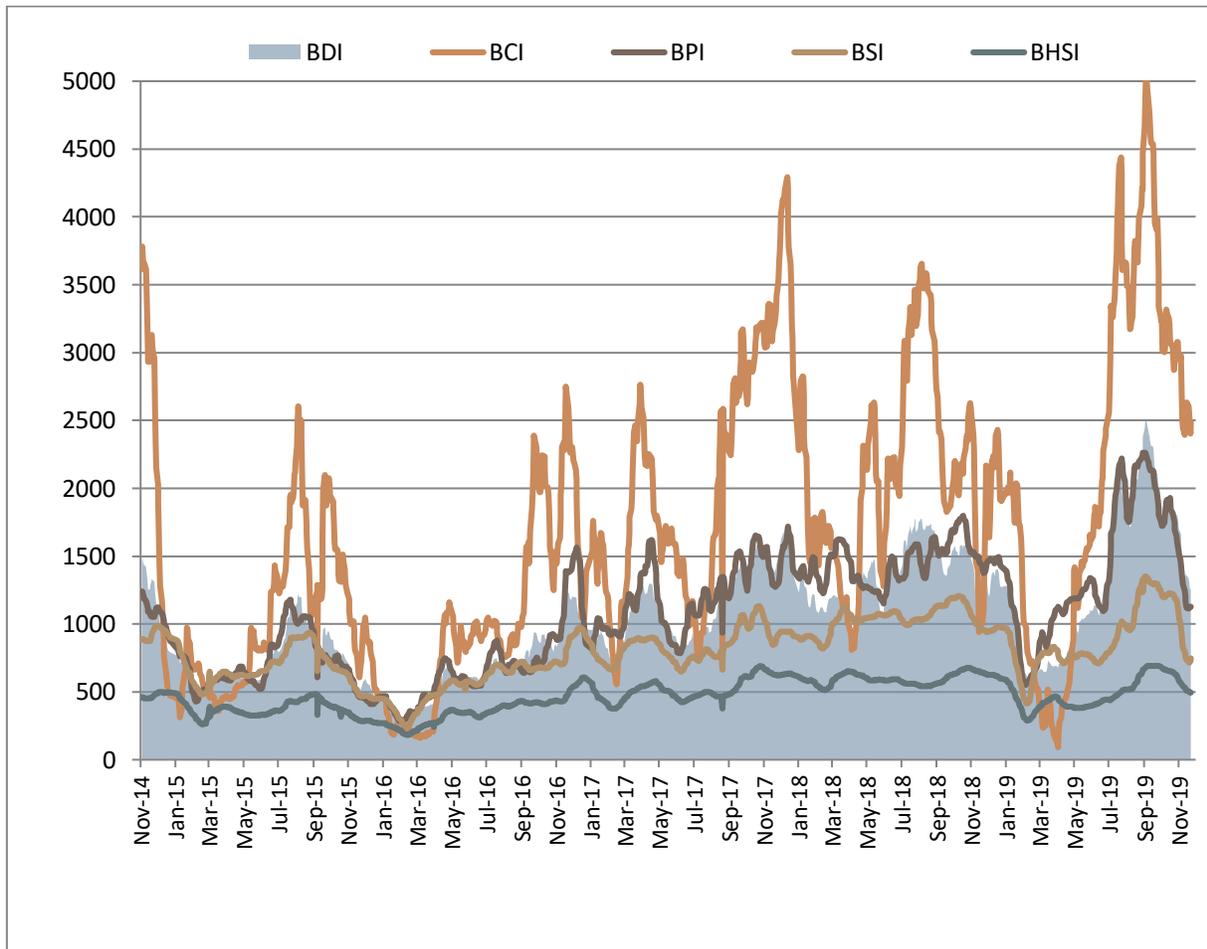
TYPE	VESSEL	DWT	LDT	BLT	YARD	M/E	PRICE (usd/ldt)	REMARKS
CONT	MARINA STAR 1	13,089	5,473	1983	CHINA		345	AS IS SINGAPORE incl. 150t bunkers
RORO	INNOVATOR	12,084	10,909	1987	YUGOSL AVIA		390	AS IS S. Korea
TANKER	WINDSOR	46,057	9,453	1996	CROATIA	B&W	405	AS IS COLOMBO, gas free for hot works



V . KEY INDICATORS

1) Baltic Index

	2019-11-22	2019-11-15	CHANGE	5 Year High	5 Year Low
BDI	1284	1357	▼-73.00	2518	290
BCI	2493	2635	▼-142.00	5043	92
BPI	1129	1118	▲11.00	2262	282
BSI	747	735	▲12.00	1351	243
BHSI	494	509	▼-15.00	692	183





V . KEY INDICATORS

2) Bunker Price (USD/TON, 전주대비증감)

(USD/Ton, Change)	Singapore		Rotterdam		Houston	
IFO380	320.50	▲12.50	250.50	▼-1.00	356.50	▲9.50
IFO180	349.50	▲8.50	284.50	▼-2.50	407.50	▲6.00
MGO	580.00	▲8.50	559.50	▲3.50	618.50	▲0.50
LSMGO	575.50	▲9.50	553.50	▲14.00	-	-
VLSFO	549.50	▲9.50	503.50	▲5.50	579.00	▼-4.00

❖기준일 : 11 월 22 일 기준

3) Exchange Rate

구분	2019-11-15	2019-11-08	CHANGE
미국 달러	1176.50	1170.40	▲6.10
일본 엔(100)	1083.43	1079.75	▲3.68
유로	1301.44	1289.96	▲11.48
중국 위안	167.05	166.67	▲0.38

❖최초고시, 매매기준율기준

VI. STL NEWS & INFORMATION

[시사상식] – 테크핀[TechFin]

‘금융(FIN)+기술(TECH)’의 합성어인 핀테크(FIN TECH)를 앞뒤만 바꾼 용어로, 핀테크가 금융회사가 주도하는 기술에 의한 금융서비스를 이룬다면 테크핀은 정보기술(IT)업체가 주도하는 기술에 금융을 접목한 개념이다. 즉, 기술 기반으로 설립된 회사가 선보이는 금융 서비스를 일컫는 것으로 알리바바의 앤트파이낸셜, 카카오의 카카오뱅크가 대표적이다.

테크핀은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의 마윈(JACK MA) 회장이 2016년 12월 고안한 개념으로, 당시 그는 “중국은 5년 안에 ‘현금이 필요 없는 사회’로 진입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테크핀을 거론했다. 그는 “핀테크는 기존의 금융시스템을 채택하고 기술을 향상시킨다. 반면 테크핀은 기술로 시스템을 재건한다.”며 테크핀의 개념을 설명한 바 있다. 실제로 알리바바그룹의 금융 자회사인 앤트파이낸셜의 경우 모바일결제 서비스 ‘알리페이’를 비롯해 온라인 대출 등 금융시장에서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핀테크라는 말도 어려웠는데 테크핀이라니...!"

테크핀의 경우, 핀테크와 마찬가지로 금융에 기술을 더하여 혁신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그 혁신의 주체가 금융회사가 아닌 경우 테크핀이라고 칭합니다.

자, 그러면 테크핀 기업에는 누가 있을까요?

미국에는 대표적으로 GOOGLE, AMAZON, FACEBOOK, APPLE 이렇게 네 기업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테크핀 공룡기업에는 중국의 알리바바가 있는데요, 알리바바의 공동창업자인 마윈은 테크핀의 초기 개념을 몇 년 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미래 금융에는 두 가지 큰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금융 기관이 온라인으로 가는 온라인 뱅킹일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순수 외부인들이 이끄는 인터넷 금융입니다.”

국내 테크핀 사업을 주도하는 기업에는 카카오, 네이버, 삼성, NHN 등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IT 양대산맥 회사인 카카오와 네이버는 압도적인 이용자 수를 자랑하는 플랫폼이라는 점을 강점으로 하여 테크핀 산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출처: 네이버 블로그 -핀셋 일부발췌]



VII. CONTACT INFORMATION

STL GLOBAL Co., Ltd.

101-1401, Lotte Castle President, 109, Mapo-daero, Mapo-gu, Seoul, Korea
 Tel: +82-2-776-0840 (Rep.) Fax: +82-2-776-0864
 E-mail: seoul@stlkorea.com
 www.stlkorea.com

| **SALE & PURCHASE**

Neal S.I. Kwon (권순일 상무)
 Senior Director
 Tel. 070-7771-6410
 Mob. 010-9496-0523
 snp@stlkorea.com
 neal@stlkorea.com (Personal)

Claire C.W. Ji (지차욱 차장)
 Deputy General Manager
 Tel. 070-7771-6411
 Mob. 010-6625-9785
 snp@stlkorea.com
 claire@stlkorea.com
 (Personal)

| **CHARTERING**

Sancho Kim (김현진 이사)
 Director
 Tel. 070-7771-6404
 Mob. 010-5756-9378
 snp@stlkorea.com
 sancho@stlkorea.com
 (Personal)

Leo J.M. Jung (정재문 부장)
 General Manager
 Tel. 070-7771-6409
 Mob.010-3273-4008
 snp@stlkorea.com
 leo@stlkorea.com (Personal)

| **RESEARCH**

Anna Lee (이혜란 과장)
 Manager
 Tel. 070-7771-6403
 Mob. 010-2258-5561
 snp@stlkorea.com
 anna@stlkorea.com (Personal)

| **AGENCY OPERATION (오수현 차장 Tel. 070-7771-6402)**

| **FERROALLOY LOGISTICS (안지영 차장 Tel. 070-7771-6405)**

| **WAREHOUSE MANAGEMENT (진정식 과장 Tel. 070-7771-6406)**

E-mail. operation@stlkorea.com

에스티엘 지투어 (www.stlgtour.com)
 Tel. 1661-8388 (Rep.) Fax. 02-6499-8388
 E-mail. tour@stlgtour.com

| 기업/일반 단체 (이현성 부장 Tel. 070-4800-0153)
 | 항공 예약 (김영하 실장 Tel. 070-4800-0151)
 | 패키지/허니문/골프 (김홍모 대리 Tel. 070-4800-0150)

전남요트아카데미 (www.stlyacht.com)
 Tel. 061-247-0331 Fax. 061-247-0333
 E-mail. academy@stlyacht.com

| 보트/요트 면허취득 (이진행 실장 Tel. 010-2777-4027)